

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합병 PT 스크립트

(2022. 7. 21 / IR그룹)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IR그룹장 이승진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당사 국제금융실장 박원재 상무님, 경영전략그룹 김동운 그룹장님, 자금그룹 곽상용 그룹장님 그리고 에너지 채무회계그룹 김권종 그룹장님 참석하고 계시며, 송도에서는 당사 IR그룹 4명과 LNG수요개발그룹 정영훈 그룹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콜은 제가 먼저 합병 관련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 방식은 당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존속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포스코에너지는 소멸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하신 합병 비율은 1 대 1.1626920입니다.

주당 합병 가액을 산정해 보니 당사 27,801원, 에너지 32,324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치평가 방식은, 당사는 작년 말 기준 자산가치를 100% 반영하였고

인사말

에너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1.5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주 변동 사항을 보시면 합병법인의 발행 주식은 신주가 52,547,639주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주주의 변동 사항은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이 70.7%로 상승하게 되고 에너지가 갖고 있던 자기주식 11%는 합병 법인의 자기주식 3.3%로 전환하게 됩니다

합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4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종료기간은 11월24이며, 합병완료 기일은 2023년 1월1일 입니다. 그리고 합병신주는 2023년 1월20일에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포스코그룹 편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의 변화로 핵심사업의 보다 빠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포스코그룹 편입이후의 성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성장하였으며 배당금도 2009년 50원에서 2021년 800원까지 꾸준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편입이후 3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2013년 미얀마가스전 생산개시, 2017년 P&S합병, 2020년부터 시작된 인니팜의 생산 본격화 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사업의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합병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에너지 분야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E&P 역량을 강점으로 하는 업스트림 쪽의 주요 자산들과 기반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미드스트림 그리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다운스트림 쪽의 역량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LNG사업은 생산부터 저장, 발전까지 수직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같은 친환경 사업으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너지를 좀더 부연 설명 드리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쪽 연결이 되는데 미드스트림의 수출 터미널과 운송선은 이번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성장 투자 가속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우선, 양사의 합병에 따른 기업 규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올해 6월말 기준이며, 매출/영업이익/EBITDA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누계입니다.

이렇게 단순 합산을 해도 자산 20조, 매출 42조, 영업이익 1조 이상의 체격과 체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사업은 인니, 말련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과 탐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 액화터미널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신규 LNG발전 투자를, 해외는 전략지역인 동남아시아에 Gas to Power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친환경에너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소혼소발전, 태양광/육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US사업은 호주의 산토스사와 말런 페트로나스와 함께 해상 CCUS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NG의 경우 현재 거래량이 약 131만톤인데 2030년까지 1,200만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입터미널의 저장용량을 21년 73만k1에서 30년 270만k1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급 물량은 기본적으로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수급 밸런스를 유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LNG전용선 장기용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 및 친환경사업관련 성장전략 입니다.

발전 분야는 현재 3.6G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30년까지 LNG, 수소혼소, 부생발전을 합쳐 6.1GW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LNG발전은 국내발전사업 다각화, 해외 Gas to Power사업 진출 수소는 단계적으로 LNG전소에서 수소혼소를 거쳐 전소발전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분야는 암모니아 저장탱크와 태양광/풍력같은 재생에너지가 큰 두 축입니다. 지금은 생산량이 미미하지만 30년에는 저장탱크 51만 k1, 재생에너지 2.4GW까지 확대가 목표입니다.

인사말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들을 요약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0.9TCF에서 30년 2.5TCF로,
LNG거래량은 1,200만톤, 수입터미널 저장용량 275만k1,
발전용량 6.1GW, 재생에너지 발전 2.4GW, 암모니아탱크 저장용량
51만k1 달성이 2030년 목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EBITDA와 시가총액을 3배로 확대,
2030년 EBITDA 3.6조, 시가총액 13.2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TOP 10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양사 합병을 통한 성장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